



발간자료

• **7월 금통위:** 7월 금통위 25bp 인상(2.75%). 만장일치 결정. 3년 6개월만에 긴축으로 전환. 통방문 문구, 성장/물가/금융안정에 대한 시각 모두 매파적 뉘앙스 강화기자회견, 데이터 디펜던트 및 5월 점도표 언급 등으로 우려보다는 완화적 뉘앙스. 당사는 7월 인상 이후 8월 수정 경제 전망 등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예고한 뒤 10월 추가 인상을 단행 하는 경로를 전망. 단, 2분기 GDP가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경우 백투백 인상 가능성이 급증할 수 있음에 유의. 시중 금리는 당분간 3.8% 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 그러나 최종 3회 인상 기대가 유효하다면, 8월 금통위 이후 하락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하반기 전망의 방향성 유지

(투자전략 조병현)

• **조선 Weekly:** 선가: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제자리. ▶ 탱커: 2026년 상반기 VLCC 신조발주 168척(Affinity)으로 1969년 최고치 110척 경신, 한화오션 JP모간으로부터 VLCC 2척 수주(2030년 3월 인도·척당 131백만달러). ▶ 가스선: 중동 긴장으로 VLGC 스팟 운임 재급등, 한국 올해 VLGC/VLAC 46척 수주 중. ▶ LNG·FLNG: Delfin Midstream이 FLNG2 지분 50%를 MidOcean에 Farm-out 연내 FID 목표, Eni는 모잠비크 Coral Norte FID 임박(2028년 가동). ▶ 방산·해와: 인도 타타그룹 케랄라주 10억달러 조선소 건설 발표, HD현대중공업과 국영 코친조선 협력 협의 중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클래시스_BUY/7만원:** 2Q26E 매출액 1,009억원(YoY +21%), 영업이익 474억원 (YoY +10%)으로 컨센서스 하회 전망. 컨센서스 하회 원인은 국내 퀴드세이 판매 부진 및 브라질 PMI 지연. 2026.07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윤준오 대표 선임. 미국/중국 글로벌 확장 국면에서 밸류 제고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 하반기 중국 불뉴머 품목 허가 또한 관전 포인트. 대리점 물색 중이며 2026E말 출시 목표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세아제강_BUY/19:** 2Q26E 영업이익은 내수·수출 수익성 동반 개선에 힘입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 내수는 프로젝트 매출과 저가 재고 효과, 수출은 미국향 판매 확대와 OCTG 가격 상승으로 견조한 수익성 유지 예상. 미국 반덤핑 조사, 열연 가격 상승, 고유가에 따른 시추 수요 확대 등으로 하반기 수출 모멘텀도 긍정적

(철강/비철금속 이정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